

베트남의 ‘남부캄보디아’ 획득 과정에서 보이는 명 이주민의 역할

- ‘용문장사(龍門壯士)’의 활동을 중심으로, 1679-1732*

최 병 욱**

머리말

명·청 교체기 명군 패잔병 집단에 의해 남부베트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베트남사는 물론이고 어지간한 동남아사 개설서에 서도 놓치지 않고 다루어질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만주족의 침입에 저항하던 명나라 병사 3,000여명이 병선 50여척에 나누어 타고 남베트남에 귀부하니(1679) 응우옌씨 정권은 이들을 참파 건너 남쪽 땅으로 보냈다. 용문총병(龍門總兵)¹⁾이라 일컬어지는 양언적(楊彦迪)과 부장(副將) 진안평(陳安平)이 이끄는 한 무리는 훗날 미토가 되는 지역에, 고뢰렴총병(高雷廉總兵)²⁾이라던 진상천(陳上川)의 무리는 동나이(훗날 비엔호아)에 정착하여 이 지역을 개간하고 교역을 발전시켰다는 줄거리이다. 명군 이주민의 공헌으로 미토와 비엔호아에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학과, choibyunghook@inha.ac.kr.

1) 용문은 광둥성 훈주(欽州) 입구에 있는 몇 개의 섬을 아울러 이르는 명칭이다. 통킹만을 하나의 해상 세계로 상정한다면 용문은 통킹만의 ‘중국 지분(China's portion)’에 해당한다. Wheeler(2012), p. 513.

2) 고뢰렴은 광둥성의 고주(高州),뢰주(雷州), 염주(廉州)를 일컫는다.

교역이 발전하여 ‘청인 및 서양, 일본, 말레이 등 여러 나라 상선이 모여 들었다(湊集)’는 기사도 이젠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은 ‘한풍(漢風)’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1698년 남부 지배를 위한 기구로 가정부(嘉定府)가 들어선 이후에 동나이 지역 중국인은 청하사(淸河社), 사이공에 살고 있던 중국인은 명향사(明香社)³⁾로 조직됨으로서 명 유민의 베트남 정착이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중국 광동의 퇴주(雷州) 출신 막구(鄭玖 Mạc Cửu, 1655-1735)가 훗날 하띠엔이 되는 캄보디아 서남부 지역을 18세기 초부터 개척하고서는 이 지역을 갖고 베트남에 귀부했다는 사례까지 더해져서 비엔호아와 사이공, 미토, 그리고 하띠엔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이 베트남 땅으로 편입되는 데 중국인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본인은 1679년 명 유민 3,000여명의 이주로부터 명향사, 청하사로 중국인이 조직되는 과정이 과연 이렇듯 평화적이고 성공적이며 연속적인가 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우선, 명향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가 사이공과 비엔호아였던 사실 때문인지 이들이 또는 이들의 기원이 명 유민이었을 것이라고 여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 역시 명향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었다(Choi 2004: 39). ‘명향사’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17세기 중반 호이안에서는 명향사란 분명 명 유민의 집단을 일컫는 이름이었다(藤原利一郎 1986: 262-263). 그래서 3,000여명의 명군 이주 집단도 명향 중국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1698년 명향사와 청하사를 만들 때는 이들 3,000여명 유민의 일부 또는 그들의 자손이 명향사 구성원으로 포섭되었던 것은 분명하

3) 민망 년간(1820-1841) 중국인에 대한 동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明香’은 ‘明郷’으로 표기법이 바뀌었다. 중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명나라의 향화’라는 단어 대신 ‘명나라 (후손 또는 유민)의 고향’ (즉 베트남)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뀐 것이다. 두 단어 모두 베트남어로 발음 및 성조까지 같다.

다. 그렇지만 양 사 구성원 대다수는 이들이 아니라 청조 수립 이후 새로 이주해 온 중국인이었던 것 같다. 1698년 명향사와 청하사 설립의 기사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명향사고 청하사고 간에 그 구성원은 청인(淸人)으로서 베트남에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었다.⁴⁾ 이 기사에 바로 이어져 “청상으로서 [이곳에] 거주하는 자는 이때부터 모두 호구로 등록되었다”(ibid.)고 하니 두 조직의 구성원은 주로 청인이었음이 분명하다. 명군 이주민의 공헌으로 미토와 비엔호아에 교역이 발전하여 ‘청인 및 서양, 일본, 말레이 등 여러 나라 상선이 모여 들었다’는 말 중에 나오는 ‘청인’이 명향사와 청하사의 주인공이지 명군 이주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⁵⁾

그렇다면 3,000여명의 명 유민은 어디로 갔을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 명 유민이 무력 집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실록’은 이들을 ‘병사 3,000여명(兵三千餘人)’이라 했다(『前編』, 5:22a). 단지 ‘진상천열전’에는 명 유민이 모두 병사가 아니라 ‘병사 및 집안 권속 3,000여명(弁兵門眷三千餘人)’⁶⁾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상천 등 지휘관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병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3,000여명을 포함하는 명청 교체기 이주민이 ‘명의 향화를 받드는 자’라는 의미의 ‘明香’이란 이름의 기원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명향의 이미지는 ‘충성과 의리를 지킨 자 또는 그들의 후예’라는 색채가 강하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휠러(Charles Wheeler)는 명향의 이미지를 뒤집어서 주목된다. 그에 의하

4) “以淸人來商居鎮邊者立爲淸河社居藩鎮者立爲明香社”, 『大南寔錄前編』(1844, 東京: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1)(이하 『前編』), 10:29. 7:14b.

5) 정회덕(鄭懷德, Trịnh Hoài Đức)은 ‘청인’이란 말 대신 ‘唐人’이란 단어를 써서 중국인의 범주를 좀 더 넉넉하게 잡고 있다. 서양, 일본, 말레이인과 함께 모여든 이들은 당인이었고 명향사와 청하사의 구성원을 설명하는 데서는 ‘청인’ 대신 ‘당인 자손’이란 표현을 썼다. Trịnh Hoài Đức(1998), pp. 202, 206.(이하 쪽수는 원문 쪽수임)

6) 『大南列傳前編』(1852, 東京: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1)(이하 『列傳前編』), 6:14b.

면 명항은 대부분 “기껏해야 무장 상인이요, 나쁘게는 해적(at best armed traders, at worst pirates)”이었다(Wheeler 2012: 521). 명항의 개념에 대한 발상 전환은 3,000여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작업에서 ‘명나라의 향화’라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은 청군과의 전투에서 단련된 전사들이었고 근본이 광둥성에 속한 용문 및 그 주변 도서부를 근거지로 하는 해적집단이었다. 단지 그들이 반청 세력에 가담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 해적(political pirat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⁷⁾ 바다 위의 무력 집단이 법외의 해적과 조정의 수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동서를 막론한 보편적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 망명 집단이 해적이기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되지 못한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들 중국인 이주민이 병사이거나 적어도 언제라도 전투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이다. 약탈자로 돌아갈 가능성도 물론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명의 병사들이 들어온 미토와 동나이 지역이 1679년까지 베트남의 영토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영토였다는 사실이다. 즉 베트남이 3,000여명의 중국인 이주민을 보낸 곳은 캄보디아였다. 호의적으로 해석하자면 베트남이 소개한 이주민을 캄보디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재는 베트남의 알선으로 명 해적이 캄보디아 땅을 무력으로 점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응우옌 왕조의 사료에는 명 병사들을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해 놓고 이를 캄보디아 왕에게 통보하면서 다른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하지만(『前編』, 5:22b; Trịnh Hoài Đức 1998: 201) 통보라는 것은 사실 억지이자 강압이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응우옌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부 찐씨 치하의 학자로서 같은

7) ‘정치 해적’에 대한 논의 및 양언적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는 Niu Junkai and Li Qingxin(2011), pp. 133-140; Zottoli(2011), pp. 301, 318; Antony(2012).

사실을 기록한 여귀돈(黎貴惇 Lê Quý Đôn)의 표현이 더 실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왕이 양언적 등을 “캄보디아 경내에 가서 살게 하고 캄보디아 왕에게 명하여 땅을 나누고 언적이 미토 해문(海門)에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게 했다”⁸⁾고 한다. 베트남 왕이 캄보디아 왕에게 명한 것이다. 왜 이런 관계가 가능해졌는지는 본문에서 살피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필자는 3,000여명의 명 유민이 농사와 교역에 종사해서 미토와 동나이 두 지역 토지가 개간되고 여러 나라의 상선이 몰려들게 되었다는 역사 전개의 추이가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게다가 명 유민의 이주로 인해 “남부캄보디아(東浦)⁹⁾가 한풍에 점차 물들기 시작했다(由是漢風漸漬于東浦矣)”는 기사(『前編』, 5:22b-23a)도 의심스럽다. 여기서 ‘한’은 『大南寔錄』의 용법상 ‘중국(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을 가리키는데(Choi 2004: 136-138), 명 유민의 이주로 인해 ‘베트남풍’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인과 관계가 억지스럽게 느껴진다. 사이공 명향 출신 정회덕(鄭懷德 Trịnh Hoài Đức, 1765-1825)의 『嘉定城通志』에는 ‘한풍’이 아니라 ‘중국화풍(中國華風)’으로 표현되어 있다(Trịnh Hoài Đức 1998: 202). 이 책을 많이 참고했을 ‘실록’ 편찬자들이 ‘중국화풍’ 대신 ‘한풍’으로 적어둔 것이다. 정회덕이 기억하는 내용과 ‘실록’ 편찬자가 연상하는 내용은 달랐던 것 같다. 말하자면 정회덕의 ‘화풍’이란 명 유민에 의한 중국적 요소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고, 응우옌 왕조의

8) “往居高綿國界命高綿王分地許彥迪駐美湫海門”, Lê Quý Đôn(1972), 卷1, 35.

9) 東浦는 “嘉定의 옛 별명”이라고 한다. 『前編』, 5:21a. 남부베트남을 이르는 단어로 베트남이 사용했던 ‘嘉定’이란 단어는 1698년에 처음 사료에서 쓰이기 시작하니 1679년 당시 ‘東浦’는 남부캄보디아를 가리킨다. 필자는 혹 ‘東浦’라는 글자가 캄보디아를 표기하는 ‘간포채(東埔寨 Gián Phó Trại)’에서 왜곡되어 나온 글자가 아닌가를 생각한다. 즉 간포(東埔)가 동포(東浦)로 잘못 쓰여 전해졌을 가능성을 이른다. 그러나 캄보디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 간포채가 왜 굳이 남부 지역만을 의미하는 말로, 그것도 한 글자(寨)가 빠진 ‘간포’로써 남부를 지칭했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사관들이 말하는 ‘한풍’이란 명 유민에 의해 이 지역이 베트남 땅이 되었던 결과를 강조함인 것이다.

명 유민의 무력 및 그 역할은 베트남의 남진사에서 주목되어 왔다. 특히 유인선은 미토로 간 집단의 내분으로 양언적이 부하 황진(黃進)에게 살해당했고 황진은 “캄보디아 내에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 했다”(유인선 2002: 221)는 인식을 통해 명 유민 집단을 베트남이 아닌 캄보디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양언적이나 진상천 집단의 무력에 관심을 가진 연구로는 일찍이 사쿠라이 유미오의 “Eighteenth-Century Chinese Pioneers on the Water Frontier of Indochina”가 있었다. 그는 동남아와 일본을 오가는 교역자들의 관찰을 인용하여, 두 세력이 비적화 되었으며 무력을 바탕으로 메콩 델타 중국인 네트워크를 장악해 나갔다고 파악하고 있다 (Sakurai 2004: 35-52). 이 연구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포함하는 남지나해 지역의 ‘수향의 변계(水鄉의 邊界 Water Frontier)’를 기반으로 한 중국인 무력의 역동적 측면을 포착했다는 데서 그 공헌이 다대하다. 단지 그의 연구는 17-19세기 메콩델타와 남지나해에서 중국인의 역할을 강조해야 되는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권이나 캄보디아와의 관계는 거의 고찰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그는 진상천 집단이 응우옌 조정으로부터 독립적이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중국인의 무력을 과도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논하겠지만 가혹하고 집요한 베트남의 중국인 통제 전통은 이 시기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조톨리의 최근 연구 “Reconceptualizing Southern Vietnamese History from the 15th to 18th Centuries”(2011)도 주목된다. 그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인)만 아니라 태국까지 포함하는 4개 국 간에 벌어진 이 시기의 사건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실록’의 모체가 된다고 여겨지는 『嘉定城通志』, 『撫邊雜錄』, 『南朝功業演志』에 더해 캄보디아

사서 및 일본인의 기록과 스페인, 네덜란드인의 기록을 동원하여 이 시기의 복잡다단한 모습을 그려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연대가 서로 맞지 않고 인명과 지명의 비정이 쉽지 않아서 내용은 많되 그것이 난삽한 나열로 흘러버렸음이 아쉽다. 자료 소개에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정사의 맥락이 흐려지고 중요 내용까지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조톨리가 캄보디아 측의 일차 사료로 많이 사용하는 막포은(Mak Phoeun)의 *Chroniques Royales du Cambodge(de 1594 à 1677)*(Paris: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81) 같은 자료는 신뢰성이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Kersten 2006: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관련해 조톨리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필자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17세기 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국제 관계에 대한 조흥국의 연구 『17세기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의 정치적 관계』(1997)가 있다. 조흥국은 태국 사료를 비롯해서 일본 자료 『화이변태(華夷變態)』(1958) 그리고 르끌레르(Adhémar Leclère)의 *Histoire du Cambodge depuis le 1er siècle de notre ère*(1914) 등 국외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료가 빠진데다가, 캄보디아의 역사서로 참고한 상기 책의 저자 르끌레르는 전직 식민지 관료로서, 캄보디아의 법률, 문학, 민속, 종교 등에 걸친 다작의 저술가이기는 하되 신뢰할 만한 역사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아울러 일본 측의 자료인 『화이변태』는 중국 및 동남아 각처로부터 나가사키를 방문한 ‘당선(唐船)’이나 네덜란드 사람들로부터 도꾸가와 막부의 관리들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풍설서(風說書)’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매우 귀중한 자료지만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¹⁰⁾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10) 이 자료로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온 ‘당선’의 진술만 가려 뽑아 영어로 번역된 책이 이시이(Ishii Yoneo)의 *The Junk Trade from Southeast Asia, Translation from the*

하고 조흥국의 연구는 본고의 초반부에서 고찰하는 17세기 후반의 베트남-캄보디아 관계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본문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세 가지이다. 첫 장에서는 1679년까지 베트남-캄보디아 관계사를 ‘실록’에 의거하여 정리하겠다. 베트남 정사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기록은 1658년의 것이며 내용은 양국 간의 전쟁이다. 이후의 양국 관계도 전쟁이란 주제 속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장은 미토 지역을 개척한 중국인 유민 집단의 자취를 황진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동나이에 자리 잡은 진상천 집단이 마지막 장에서 다루어진다. 그 서술 하한은 1732년 진상천의 아들이 옥사할 때까지이다. 이후로 베트남-캄보디아 전쟁에서 중국인의 존재는 사라진다.

Tōsen Fusetsu-gaki, 1674-1723 (1998)이다.

1. 싸움의 시작, 갈등의 기원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왕과 베트남 공주¹¹⁾ 사이의 혼인이나 사이 공예의 주둔지(혹은 세관) 설치 사례 등을 들어 17세기 초반이 베트남의 남진과 관련된 양국 관계사의 기원으로 얘기된다. 그 근거는 막포은의 *Chroniques Royales du Cambodge*를 포함하는 캄보디아 역사서이다.¹²⁾ 캄보디아 여성사를 연구한 제이콥슨(Trudy Jacobsen)의

11) 흔히 응옥반(Ngoc Van 玉萬)공주라 함. 13세기에 참파 왕과 혼인한 후옌쩐(Huỳền Trân 玄珍) 공주와 더불어 베트남 남진의 선봉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두 여성 중의 하나이다.

12) Leclère(1914), p. 339; Mak Phoeun(1984), pp. 286-296.

정리에 따르면 자이제타 2세(Jai Jettha, 1618-1627)가 왕자 시절 부왕 파라마라자 4세(Paramaraja, 1603-1618)의 결심으로 베트남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유타야의 공격이 있을 경우 베트남의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Jacobsen 2008: 89). 그런데 베트남 쪽에서는 『大南寔錄』은 물론이고 『撫邊雜錄』, 『嘉定城通志』 어디에도 이런 기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물론 베트남 왕의 딸은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캄보디아 왕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당시 왕의 권위 고양이나 외교 필요상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외국 왕만이 아니라 외국 실력자의 딸과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이공에 베트남군의 주둔지(또는 세관)를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베트남 사료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1618-1622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궤년에서 머물던 이탈리아 선교사 보리(Christoforo Borri)는 이곳으로부터 배를 타고 캄보디아를 왕래하는 베트남 측 사절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Dror and Taylor 2006: 156-161). 이런 양국 관계 속에서 캄보디아 왕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사이공에 베트남 주둔 사무소 같은 것이 있었을 수 있다. 심지어 1594년 아유타야와 캄보디아 사이의 전쟁으로 캄보디아 수도 로벡(Lovek)이 점령당하고 왕이 라오스로 피난 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부터 이미 베트남인이 캄보디아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추측도(Jottoli 2011: 171) 가능하다.

『大南寔錄前編』에 최초로 나타나는 ‘진랍(眞臘)’(캄보디아)은 베트남에 대한 침략자로서였다. 1658년 음력 9월 캄보디아 국왕 진(禎¹³), Reameathipadei¹⁴), 1642-1658¹⁵)이 진변영(鎭邊營)의 경계를

13) 원문에는 ‘닉옹진(匿翁禎)’으로 되어 있다. ‘닉’은 캄보디아어 ‘낙(Nak)’을 표기한 것으로서 귀족층에게 붙는 호칭이다. 匿의 베트남어 발음은 ‘낙(Nặc)’이다. ‘옹’은 캄보디아어 ‘앙(Ang)’으로서 왕을 뜻한다. 그런데 베트남 사서는 ‘숨다(닉)’와 ‘나나니 벌(옹)’이란 글자를 써서 캄보디아 왕을 희화화 했다. ‘나나니 벌’은 땅에 집 짓고 사는 허리가 가는 벌로서 일반 땅벌이나 말벌과는 달리 허약하게 생긴 벌이다. 결국 캄보디아 왕을 부르는 호칭이 ‘숨은 나나니 벌 찰(Chân, 禎)’이 되는 것이

침범했다는 기사가 나온다(『前編』, 4:22b). 이 캄보디아 왕은 말레이(또는 참) 여성과 결혼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인물이었다. 이는 캄보디아의 수도에 일본인, 말레이, 참인, 인도인, 중국인, 유럽인(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의 도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교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던 형편을 반영한다(Ishii 1998: 153; Kersten 2006: 2; Chandler 2008: 105). 그런데 이들 외국인 사이에서 왕실을 끼고 벌어지는 권력 투쟁도 심했다. 1643년에 네덜란드인들이 분명치 않은 이유로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하자 이에 대한 응징으로 출동했던 다섯 척의 동인도회사 배가 격퇴당하고 120명의 승무원이 전투 중에 사라진 사건은 캄보디아의 자신감을 고양시켰다. 이때 캄보디아군에는 말레이, 일본인, 포르투갈인이 끼어 있었다고 한다(Kersten 2006: 20). 캄보디아가 1658년 베트남을 공격했을 때 이들 외국인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캄보디아

-
- 다. 禪은 희귀한 한자로서(1981년판 『漢韓大字典』에는 나오지 않는다) 『大漢和辭典』(1968)에는 ‘복을 받는다’로 풀이되어 있다. 이름만은 비교적 점잖은 한자를 선택해 불러준 것 같다. 그러나 이 사전에 의할 것 같으면 禪은 청 世祖의 묘호로 사용된 글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청대 중국에서는 휘자였다고 한다. 청 황제의 이름에 쓰인 글자가 베트남인에 의해서 캄보디아 왕의 이름으로 사용된 데는 베트남 사관들 사이에 모종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베트남 사서에서 사용된 캄보디아 왕의 이름은 이밖에도 인(印), 눈(嫩), 존(尊), 추(蜀), 신(新), 추(秋), 태(苔), 엄(淹), 영(榮) 등인데 이 중 도장(印), 어리다(嫩), 꿀(蜀), 이끼(苔), 물에 젖다(淹) 등은 별로 권위 있어 보이지 않는 의미의 글자들이다. 가을(秋)이라는 이름은 뜻만 놓고 보자면 그럴듯하긴 한데 응우옌 씨 치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어디에도 없는 절기인 가을이 왕의 이름으로서는 공허해 보인다. 존은 과도하게 높아 보여서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 글자의 의미 중에는 술잔(樽)도 있는 것을 보면 이 의미를 연상하며 尊을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새롭다는 의미의 신(新)과 번영할 영(榮) 정도만이 그럴 듯하나 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왕은 ‘실록’ 전체를 통틀어 사이공의 한 이국왕 한명 뿐이었다. 그리고 영이라고 부르던 왕은 18세기 말에 다소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베트남 원정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 14) 왕자 시절 그의 이름은 Chao Ponhea Cand이며 무슬림이 된 후에는 Ibrahim이었다. Kersten(2006), p. 3. 베트남에서 만든 이름 禪은 Cand에서 나온 것 같다.
- 15) 이하 캄보디아 왕의 이름 및 재위 기간은 D. G. E. Hall, *A History of South-East Asia* 1958, p. 740의 캄보디아 왕위 계승 연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전문 연구자들이 제공하는 연대와 교감하며 적어 나가겠다.

왕의 자신감에는 군대 및 경제, 정치의 국제성이 작용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베트남을 선제공격했다는 ‘실록’의 기술은 갑작스러워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실록의 내용을 의심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실록 내용의 논리를 뒷받침해 줄 만한 주장이 캄보디아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것은 왕의 형제들이 이 무슬림 왕을 제거하기 위해 베트남군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Chandler 2008: 105). 참 및 말레이 병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던 캄보디아 왕의 군대는 일종의 무슬림 군대였고 두 형제 앙수르(Ang Sur)와 앙탄(Ang Tan) 왕자의 도전은 불교도의 반발을 상징했다. 이 두 왕자는 당시 캄보디아 왕(쨬이쨬타의 셋째 아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처형한 바 있던 숙부의 두 아들이었으며 이들은 왕의 계모이자 자신들의 백모뻘 되는 ‘베트남 공주’와 친했기 때문에 두 왕자와 베트남 여인 사이의 연합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Khin Sok 1991: 35; Kersten 2006: 15). 그렇다면 ‘베트남 공주’ 주변의 베트남인 또는 베트남인 무력 집단이 두 왕자의 편에 섰을 것이고 베트남에서도 이미 캄보디아 내전에 군대를 파견해서 두 왕자를 도왔을 수 있다. 즉 베트남군이 먼저 캄보디아로 건너가 ‘반란군’을 도왔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캄보디아 왕이 태강영(泰康營)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기서 캄보디아 왕이 침범했다는 진변영의 위치가 이 글에서 논하는 용문 병사의 행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실록’의 주석에는 이곳을 비엔호아라고 하지만¹⁶⁾ 의문의 여지가 크다. 만약 이 주석에서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진변영 즉 비엔호아가 이 시기에 이미 베트남 영토 내에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명 유민 3,000여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자고 하면서 비엔호아로 진상천 집

16) 『前編』, 4:22b. 막포은 역시 비엔호아에서 쩌 왕이 도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Mak Phoeun, Po Dharma(1984), p. 301.

단을 보낸 사실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변영은 1629년 ‘실록’에 최초로 나온다. 이때 부안(富安)에서 점성(占城)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토벌하고 진변영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 주석에는 “영토를 개척한 초기 끝 지점을 진변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前編』, 2:14b). 그러나 이 관행이 계속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참파가 부안 즉 진변영을 침범했음을 이유로 벌인 전쟁(1653)에서 승리한 후 응우옌 씨 조정이 남쪽으로 더 영토를 확장해 설치한 기구의 이름은 태강영이었다. 이 태강영은 태강과 그 남쪽 연경(延慶)을 포괄한다고 했으니(ibid., 중심지는 연경에 두었다) 각각 현재의 닌호아(寧和)와 냐짱이었다. 그리고 참파와는 반랑강(潘郎江)을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ibid.). 여기서 반랑은 현재 닌투언(Ninh Thuận 寧順)의 성도 판랑(Phan Rang)이니 1653년에는 판랑보다 위쪽인 현재의 카인호아 지역이거나 조금 더 아래까지 베트남의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는 5년 뒤 캄보디아 왕이 진변영을 공격한 것인데, 이 진변영이 닌투언은 물론 그 아래 빈투언(Bình Thuận 平順, 성도는 판티엣 Phan Thiét) 보다는 남쪽인 비엔호아라는 것이 ‘실록’의 주장이다. 반면 정회덕은 진변이 이 시점까지 부안이었다고(Trình Hoài Đức: 198) 한다.

『大南寔錄前編』에서는 캄보디아의 공격에 맞서 베트남 왕¹⁷⁾이 진변영의 군사 3,000을 보내 흥복성(興福城)에 이르러 크게 파하고 캄보디아 왕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실록’의 주석에 따르면 이 흥복성은 ‘매취(每吹)’로서 19세기에는 비엔호아성 복정현(福正縣)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前編』, 4:22b). 이 기술에 따르면 진변영이나 흥복성이 마치 베트남 땅 같아 보인다. 그런데 정회덕의 기술은 다르다. 그는 베트남 병사들이 “고면(高綿)[캄보디아] 매취성

17) 태종 응우옌푹면(Nguyễn Phúc Tần 阮福瀾)으로서 현왕(賢王 1649-1687)이라고 흔히 부름. 남북 휴전(1672)을 끌어내고 곧 이어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每吹¹⁸⁾城)에 이르러 크게 적과 싸워 이기고 캄보디아 왕을 사로잡았다”(Trịnh Hoài Đức: 198)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즉 ‘실록’과 정회덕은 공히 양군 사이 대접전이 벌어진 곳이 현 바리아(Baria)에 해당하는 모이쑈아이(Môi Xoài, 每吹)라고 했지만 정회덕은 1658년 이곳이 캄보디아의 영토였음을 명시하며, 사로잡은 왕을 관병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했으니 모이쑈아이와 동나이(Đồng Nai, 仝擺)에서 고만이 조정의 위덕을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양보해 피하고 감히 다투어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Trịnh Hoài Đức: 198-195).

1658년 당시 비엔호아 지역에 진변영이 존재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이 해에 비로소 베트남군이 비엔호아 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때의 진변영은 굳이 비교하자면 비엔호아라기 보다 정회덕의 ‘부안설’이 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는, 가장 남쪽에 설치되어 있던 태강영의 별칭이 아니었나 한다.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조톨리 역시 진변영의 위치에 의문을 표시하지만 별다른 제안을 내어 놓지는 않고 단지 이 진변영이 남쪽 보다는 서쪽으로 캄보디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Zottoli 2011: 273). 쩌 왕의 캄보디아 군대가 비엔호아에서 출발했다면 고원지대(현재의 럽동 정도)를 거쳐 판랑 쪽으로 내려온 후에 태강영이 있었던 나짱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캄보디아의 힘이 참파를 압도할 만 했다면 캄보디아 군에 포함된 참인의 역할로 인해 참파의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면 캄보디아 군은 동나이에서 곧바로 해안에 면한 길을 따라 나짱으로 진격했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반격에 나선 베트남군은 동나이까지 밀고 내려가 캄보디아 왕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그때 동원한 병력이 3,00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곳은 당시 베트남 남진의 최전선에 위치한 태강영밖에 없다. 비록 비엔호아에서 “아국 유

18) 원문에는 ‘木+吹’임.

민들이 캄보디아인과 잡거하며 전지를 개간하고 있었다”(Trịnh Hoài Đức 1998: 198)고 하지만 명 유민 3,000여명이 들어온 1679년까지 베트남은 비엔호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형편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는 두 번째의 양국 충돌 기사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1674년에 닉오태(匿烏苔)란 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닉눈(匿嫩)이 도망쳐 온 곳이 태강영 즉 카인호아 지역이었다. 1674년 사이공의 이국왕이 태강영으로 도망갈 때도 이 길을 이용했음은 조톨리 자신도 지적하고 있다(Zottoli 2011: 286). 캄보디아는 생포되었던 왕 귀환 이후 베트남의 번속국으로 간주되었다.¹⁹⁾ 쩌 왕이 사로잡힌 후에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았던 왕자 앙수르와 앙판이 각각 정국왕과 이국왕이 된 것 같다. 정회덕에 의하면 원래 정왕으로는 닉추(匿苴, Batom Racha, 1659-1672)가 있었고 이국왕은 동생 닉신(匿新 Nặc Tân)이었다고 한다(Trịnh Hoài Đức 1998: 199). 그렇다면 전자는 앙수르이고 후자가 앙판이 틀림없다. 정회덕은 또 정왕의 장자 닉태(匿苔)가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Chettha 3세, 1672-1673)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인물이 『前編』 속의 반란 주모자 닉오태이다. 베트남은 캄보디아 왕을 보호해야 한다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이 작전을 위해서 태강영의 군사가 동원되었는데 이 군대는 완양림(阮楊林, Nguyễn Dương Lâm)²⁰⁾의 지휘 하에 비엔호아를 넘어 사이공까지 진격해서 승리했다. 이 여세를 몰아 벽퇴(碧堆 Gò Bích)²¹⁾를 거쳐 남영(南

19) 베트남에서는 이 캄보디아 왕을 사로잡았으나 용서해 주고 귀국시켜 번신으로 삼아 매년 공세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한다. 『前編』, 4:22a. 그런데 채널러는 이 왕이 철창에 감금되어 끌려갔다가 살해당했거나 병들어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Chandler(2008), p. 105.

20) 레꾸이돈은 이 인물을 나짱영(Nha Trang 芽庄營)의 장군이라 하니(Lê Quý Đôn, 卷1, 33b) 태강영은 치소를 나짱에 두었기 때문이다.

21) 벽퇴 즉 고빅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 응우옌반허우(1970, p. 6)나 조톨리(2011, p. 285), 막포은(1988, p. 247) 공히 벽퇴를 로벡(Lovek)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필자로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앞서 소개한 1674년의 원정에서 베트남군이 벽퇴를 거쳐

榮)²²⁾을 공격해 반란군을 진압했다. 반란의 지도자 닉오테는 도주하다가 사망했고 닉추(匿秋)가 대신 항복하니 베트남은 닉추를 정국왕에, 닉눈을 이국왕에 임명했다 한다. 정회덕에 따르면 닉추는 앙수르왕의 서자였다. 정국왕의 거소는 룡오성(龍澳城)²³⁾에 있었고 이국왕의 치소(治所)는 시곤성(柴棍城)²⁴⁾이었다(『前編』, 5:17b-18).

위에서 말한 이국왕이 1679년 명 유민 집단이 이주해 올 때까지 사이공을 근거지로 해서 남부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었다. ‘실록’에 의하자면, 1674년의 전쟁에서 완양림의 참모 완연파(阮延派, Nguyễn Diên Phái)가 죽었는데 그의 영혼이 영험이 있어 캄보디아 사람들이 미토 해구(美湫海口)에 사당을 세워 그를 제사지냈다 하니(『前編』, 5:18b) 미토 지역은 당시 캄보디아 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쟁을 지휘했던 통병(統兵) 완양림이 개선함에 그를 태강영 진수로 삼고 변경의 업무를 경리하게 했다 하는 것으로 보아(ibid.) 베트남 변경의 남쪽 한계는 참파의 북쪽인 태강영이지 아직 비엔호아가 아니었음이 한 번 더 분명해진다.

이 1674년의 전쟁 후 캄보디아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다가 1679년에야 비로소 명 병사의 귀부 기사가 나오며 이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벌어진 조정의 논의에서 “진랍국 東浦 嘉定의 옛 別名 지방은 기름진 들판이 천 리에 걸쳐 있으나 조정에서는 경리할 여가가 없으니” 그들을 가게 해서 땅을 개척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前編』, 5:21a). 이에 명 유민 3,000여명이 둘로 나뉘어 “[양]언적과 황진의

남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아 벽퇴가 프놈펜 보다 남쪽에 있음은 분명하다. 『大南寔錄』에서는 일관되게 로백은 ‘라벽(羅壁)’으로 표현된다.

22) 남영은 프놈펜이다. 남영은 표준어 발음으로는 ‘남빈(Nam Vinh)’이지만 남부에서 ‘빈’은 ‘방’으로도 왜곡되는 관계로 ‘남빈’은 ‘남방(Nam Vang)’으로 발음된다. 베트남 발음으로 유추해 보자면 ‘프놈뵐(프놈펜)’의 ‘프’가 점차 짧아지다가 소멸되어 ‘놈뵐’이 되고 이것이 ‘남방’으로 전환된 것 같다.

23) 우둥(Udong)임.

24) 사이공.

병선은 괴랍해구(雷巖²⁵)海口) 현재 嘉定에 속함 로 들어가 미추 (美湫) 현재 정상(定祥)에 속함 에 머물러 복무하고 (駐札) [진]상천과 [진]안평의 병선은 근제해구 (芹蔭²⁶)海口)로 들어가 반린 (盤隣, Ban Lân)²⁷ 현재 변화(邊和)에 속함 에 머물러 복무했다”(『前編』, 5:22b)고 ‘실록’은 쓰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버려진 땅을 열고 점포를 세우니(闢閑地構鋪舍)”²⁸ 청인 및 서양, 일본, 말레이 등 여러 나라 상선이 모여 들었다는 것이다(『前編』 5:21b). 캄보디아의 이국왕이 사이공에 있었던 고로 명 유민 두 집단은 모두 이국왕의 판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룬 셈이다.

남부캄보디아에 자리 잡은 명 유민 집단은 베트남 군대의 일원이기도 했다. 이들을 캄보디아 땅으로 보낼 때 베트남 왕(太宗)은 잔치를 베풀어 노고를 위로하고 관직을 부여했기(各授以官職) 때문이다(『前編』, 5:22b). 그래서 앞 문단에서 소개한 인용문에서는 이들 집단이 두 지역에 ‘머물러 복무했다(駐札)’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이국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명 유민 3,000여명은 자기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주민이면서 그 신분은 자기를 도와준 바 있던 베트남군이였다. 곧 나오겠지만 용문 집단의 지도자였던 황진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 어느 쪽에 서야 할까를 고민할 때 자신이 입고 먹는 걸 의지하는 바는 모두 캄보디아 땅에서 나는데 캄보디아 왕을 공격하는 것은 불의요 캄보디아를 위해 베트남 왕을 거부하면 그것은 불충이어서 고민이라고 토로하게 된다(『前編』, 6:8a). 이런 고민을 낳게 한 이유는 당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변속국이라고 여기고

25) 로이랍(Lôi Lạp, 雷巖)은 현 고폡(Gò Công)을 이룸.

26) 견저(Cần Giỏi)임.

27) 『大南一統志』는 비엔 호아 성도에 있는 신린(新隣 Tân Lân) 고성(古城)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곳이 옛 반린(盤隣 Ban Lân)이며, 크메르인이 축조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고 전한다. *Đại Nam Nhất Thống Chí* vol. 2, p. 23.

28) 『嘉定城通志』의 표현으로는 “땅을 열고 황무지를 개간하며 점포와 시장을 세우니(闢地開荒構立鋪市)”임. Trịnh Hoài Đức(1998), pp. 201-202.

있었기 때문이다. 내전에 개입해서 자신들이 왕을 앉혔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 땅 안에 군대를 주둔시킬 권리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 반면 캄보디아 왕 특히 우동의 정국왕이나 그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 명군 병사를 베트남군의 침략 전위대로 인식할 소지가 컸다.

2. 미토 주둔병의 동태

캄보디아 측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은 9년 뒤였다. 미토에 주둔했던 집단 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용문 부장(副將) 황진이 주장(主將) 양언적을 살해하고 지휘권을 장악했다.²⁹⁾ 황진은 무리를 이끌고 근거지를 난계(難溪 Rach Nan)라는 곳으로 옮겼다. 용문집단이 옮겨간 난계는 19세기 베트남 지명으로 치자면 딘뜨엉 성 건화현(建和縣)에 속한 곳이었다고 하는데(『前編』, 6:5b), 미토에서 가까운 락익검(Rach Gâm)으로 추측된다(Phù Lang-Trương 1970: 113). 이곳에서 황진 집단은 “험한 곳에 의지해 보루를 쌓고는 대포를 주조하고 전선을 수리해서 병사를 풀어 노략질하게 했다(據險築壘鑄大礮繕戰船縱兵擄掠)”고 한다(ibid.). 이는 미토로 간 명 유민 집단이 해당 지역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점포를 세워’ 살았다는 기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설사 사료의 내용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기간은 9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⁰⁾ 용문

29) 양언적은 이미 1682년부터 캄보디아 이국왕의 편을 들어 메콩강을 오르내리면서 정국왕 판도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있다. Sakurai(2004), p. 40. 그리고 메콩 델타로 들어간 명 유민 집단이 용문 병사들만 있는게 아니었다. 여러 유민 집단이 캄보디아로 들어가 있었고 캄보디아의 내전에 간여하면서 각 집단 간의 투쟁도 빈번했다. Zottoli(2011), p. 294.

30) 양언적의 미토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실록’은 전혀 언급이 없다. 명 유민 3,000여명의 도래 시기에 대해서도 ‘실록’과 외국 자료들 사이에 차이가 난다. 『華夷變態』를 참고한 조홍국은 이들이 베트남에 귀부한 시기를 1682년으로 잡고 있다. 조홍국(1997), p. 59. 르끌레르는 1680년이라고 한다. Leclère(1914), p. 356. 그러나 양언적

집단이란 것이 원래 해적이었다면 황진이 지휘권을 장악한 이후의 행동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시기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구매해 나가사키를 찾은(1689년) 중국인 교역상들의 캄보디아 정세에 대한 진술에서의 표현을 빌자면 황진은 “광둥 출신의 한 해적 두목(a Cantonese pirate chief, 廣東人而於海上賊船之大將仕)”(Ishii 1998: 166; 林春勝, 林信篤 1958: 1127)이었다.

캄보디아 정국왕의 대처는 단호했다. 나는 ‘실록’을 근거로 하여 캄보디아 정국왕 닉추는 1674년 베트남군에게 항복한 후 베트남 왕에 의해 정국왕으로 임명되었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실록’의 주장 이면에는 짐작되는 바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베트남에 구원을 요청한 사람은 이국왕의 조카였던 닉눈이었고 정국왕이 되는 닉추는 베트남 군에 나와 ‘항복’하기 전까지는 베트남과 적대 관계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는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닉오태의 이복 동생으로서 닉오태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닉추로 하여금 베트남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했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게다가 닉오태가 도망친 후에도 닉추의 ‘항복’이 전쟁을 종결짓는 계기가 되었다면 닉추의 리더십 또한 강했다는 뜻이다. 베트남이 닉추를 왕위에 앉힌 것은 닉추가 왕위를 차지한 기정사실의 추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닉추는 켄타 4세(Chettha 4세, 1675-1702)이다³¹⁾ 곧 있게 될 베트남과의 일련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재위 기간이 27년이나 되는걸 보면 그의 정치 능력은 상당히 강했던 것 같다.

메콩을 거슬러 올라와 둔을 치고 노략질을 일삼는 용문 집단은 17

의 무리가 처음 상륙한 곳이 베트남의 다낭이었고 이들을 맞고 캄보디아로 보낸 당사자들의 후손이 남긴 기록이 『大南寔錄前編』 일진데, 1682년보다는 1679년을 신뢰해야 함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31) 트루디는 이 왕명의 표기법이나 재위연대를 약간 달리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왕은 Jai Jettha 4세로서 재위 기간은 1677-1702년이며 1729년 사망했다고 한다. Trudy(2008), pp. 83, 85.

세기 말 베트남-캄보디아 전쟁이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 왕이 황진의 행동을 보고 원망하여 세공을 끊고 전쟁을 준비했다고 비난함으로써(『前編』, 6:5b) 양국 간 충돌의 이유를 캄보디아 왕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왕으로서는 용문 집단의 행동을 중국인 집단을 앞세운 베트남의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실록’은 캄보디아 왕이 벽퇴(碧堆), 구남(求南),³²⁾ 남영(南榮)에 성루를 쌓고 철쇄(鐵鎖)를 강 입구에 심어³³⁾ 굳게 지켰다고 한다(『前編』, 6:6a). 벽퇴가 어디인지가 확인되지 않지만 세 지역 모두 수도 우동으로 가기 위한 메콩강 변에 있는 지역이었다고 생각된다. 전쟁의 양상은 주력군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하는 형태였다. 용문 수군이자 해적 출신 중국인이 베트남으로서는 요긴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실록’의 기사는 베트남군의 파병으로부터 용문 집단의 와해 사이의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그 자세함과 빈번한 직접 화법 사용이 ‘실록’의 통상적 기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을 뿐더러 용문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서 캄보디아 여성 사자(女使) 점요율(占遙律, Chiêm Dao Luật)과 황진 사이의 접촉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트남 조정은 황진으로 하여금 캄보디아 정벌군 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선봉장을 맡게 했다. 1689년 봄 베트남군이 미토 해구로 들어가 라익검에 진을 치고는 사람을 보내 황진이 부하를 이끌고 군문으로 나오게 했다(『前編』, 6:7b). 그러나 황진은 움직이지 않고 둔영에 머무르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32) 구남은 사이공에서 서북쪽 방향으로 가다가 국경을 넘어 만나는 메콩 강 변의 지명으로서 일찍이 응우옌반허우(Nguyễn Văn Hàu)는 이곳을 프레이벵(Prey Veng)으로 비정한 바 있다. Nguyễn Văn Hàu(1970), p. 6.

33) 『撫邊雜錄』은 여기에 더해 “전선을 만들고 대포를 주조했다”고 전하고 있다. Lê Quý Đôn, 卷 1:35b.

이때 캄보디아 왕은 “미녀로서 말솜씨가 좋은(美女有口辯)” 점요율³⁴⁾이라는 여성을 시켜 보화를 갖고 황진의 진영에 가서 설득하게 했다.³⁵⁾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군은 진랍의 땅에 산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밥 한 끼를 먹어도 반드시 되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듣건대 장군은 [베트남 왕의] 명을 받아 진랍을 칠 것이라고 하니 장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³⁶⁾ 이 횡난에 황진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만룡³⁷⁾이 나를 부름은 성심에서 우려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잡은 후 닉추를 멸하고자 할 따름이다. 내가 어찌 그에게 속겠는가? 돌아가서 너의 주인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해라.”(ibid.) 이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 조정은 황진 일행이 캄보디아 땅에 살고 있는 것으로(“居眞臘地”) 인식하고 있고 황진 역시 이 견해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여사 점요율이 다녀간 후 베트남 사절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황진은 “내 먹고 입는 것은 모두 진랍에서 나는 것”(『前編』, 6:9a)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캄보디아 땅의 거주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34) 이름에 붙은 ‘점(占)’으로 보아 캄보디아 조정을 위해 일하는 참 여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Phù Lang-Trương Bá Phát(1970), p. 114.

35) 『前編』, 6:8a. 동남아시아 및 캄보디아 역사에서 여성의 외교적 활동에 대해서는 Reid(1988), pp. 165-166 참조. 그런데 트루디는 캄보디아의 사례를 들어 여성 사자가 국제 관계 보다는 국내 관계에서 활용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점요율의 사례는 트루디의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지 않으나 17세기 캄보디아 국내 외교에(왕과 반란 집단, 또는 지방 세력 간) 여성이 관여했다는 기사가 이 학자의 책에서 여럿 소개된다. Trudy(2008), pp. 93, 95. 그렇다면 황진에게 여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1689년의 전쟁이 캄보디아 왕에게는 국내 사건으로 인식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36) 『前編』, 6:8a. 여기서 마지막 부분은 ‘竊爲將軍不取也’를 번역한 것이다. 이 표현은 『史記』 ‘항우본기’에서 홍문(鴻門)의 연회 중에 변패가 위기에 빠진 유방을 구하고자 항우에게 따지는 장면에서의 ‘竊爲大王不取也’란 표현을 패로디한 것이다. 옹우옌 조정의 실록 편찬자는 이 구절로써 캄보디아의 절박한 심정과 황진의 의롭지 못함을(캄보디아 입장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다.

37) 매만룡(枚萬龍)을 이름. 베트남군 원정 사령관.

아울러 그는 자기가 베트남이 제거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베트남의 관직을 받은 상태에서 부장이 주장을 죽인 것은 이미 참수 사유로 충분했다. 베트남 조정의 요구대로 캄보디아 원정의 선봉 역을 담당해서 공을 세운다면 혹 무사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캄보디아 사절과 접촉을 하고 그녀를 온전히 돌려보낸 이상 베트남의 의심을 해소할 가망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물길을 통한 캄보디아 정벌이 목표였던 베트남 지휘관에게 필요한 것은 용문의 병사들이었지 황진은 아니었다. 점요율의 방문 후 황진은 둔채에 머물면서 베트남 지휘관의 거듭된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로서는 진퇴양난이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인을 가장한 한 베트남인 유세객의 꾀임에 넘어가 베트남 지휘부를 방문했던 그는 북병의 공격을 받았다. 간신히 탈출하기는 했으나 생사는 알 길 없고 그의 가족은 모두 베트남군에게 살해당했다(『前編』, 6:7b-10a).

미토 지역으로 들어갔던 명 유민들만 놓고 보자면 우두머리인 양언적은 이미 황진에게 죽었고 2인자였던 황진 역시 제거되었다. 지도자들이 사라진 채 용문의 병사들만 남았다. 이 병사들은 베트남 것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3. 비엔호아 명병의 활동

황진이 거느리던 용문 병사들은 비엔호아에 근거지를 두었던 진상천의 군대로 편입되었다(『前編』, 6:10a). 진상천 및 그의 휘하 병사는 태강영 군사와 더불어 쯔타 4세 정벌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황진이 사라진 후 이젠 진상천이 모든 중국인 병사를 이끌고 베트남 군대의 선봉이 되었다. 합쳐진 명 병사의 지휘권은 비엔호아로 갔던 진상천이 잡았지만 미토로 갔던 집단의 원 근거지였던 ‘용

문’이 진상천 휘하가 된 모든 명 병사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양언적이든 황진이든, 그리고 진상천이든 그 누가 지휘하든 간에 명 병사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경략에서 선봉밖에는 다른 역할이 없었던 것 같다. 황진의 죽음을 본 진상천으로서도 베트남의 의심을 받지 않고 온전하려면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사꾸라이는 진상천이 중국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것을 두고 쏘아아랍으로부터 사이공, 비엔호아에 이르는 해상-강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장악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이를 띠엔장 루트라 부른다. 이 시기 진상천은 해적 또는 비적 우두머리였다는 것이다(Sakurai 2004: 40-41). 그러나 이런 단정은 다소 성급하다고 생각된다. 설사 진상천의 본질이 해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비엔호아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나 그의 추종자들은 베트남의 관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려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베트남 조정에서도 진상천 등에 대한 불만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물론 캄보디아 측에서 이들을 해적 또는 비적이라고 부를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캄보디아로부터 물건을 사들여 나가사키를 방문했던 중국 교역상들에게 진상천 역시 “해적 두목(chief of the pirates)” 또는 “광둥 해적(the Cantonese pirate, 廣東之海賊)”이었다(Ishii 1998: 175, 189; 林春勝, 林信篤 1958: 1576).

진상천의 부대는 베트남 지휘관이 보기에 흡족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진상천 부대를 앞세운 베트남군이 강을 가로 지른 철쇄를 파괴하고 북상하면서 벽퇴, 구남, 남영을 차례로 접수하니 캄보디아 왕은 우동으로 퇴각했다(『前編』, 6:10). 1689년에 보이는 진상천 군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우동의 캄보디아군 저항이 완강했던 관계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실록’에 의하면, 베트남군의 맹공을 저지하기 위해 여사 점요율이

이번에는 베트남군 지휘부를 찾았다. 그녀가 지휘관 매만룽에게 애소하여 공격을 늦추게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매만룽을 소환해 벌주고 완유호(阮有豪, Nguyễn Hữu Hào)를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인물 또한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맞본 후, 다시 찾아온 점요율에게 설복당해 공세를 늦추다가 파면당했다.³⁸⁾ 결국 캄보디아 여사의 ‘미모와 구변’은 황진을 포함하여 세 명의 베트남 장군을 파멸시킨 셈이다. 완유호가 벽퇴의 주둔지를 해안에 가까운 바리아(Baria)로 물렸던 상태에서 파면된 것으로 보아(『前編』, 6:16a) 메콩델타 지역은 다시 캄보디아 땅이 된 것 같다. 단 바리아가 있는 비엔호아 지역까지는 베트남의 지배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엔호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진상천의 군대는 원 근거지로 돌아갔을까? 같은 지역에 주둔하게 된 베트남군과의 관계는 어찌될 것인가? 편입된 황진의 병사들은 함께 이동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캄보디아 땅’에 두어졌을까? 베트남인에게 명군 이주 집단의 효용이 무엇이었던가가 확실해진 이상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다. 이미 비엔호아가 베트남 땅이 될 준비가 진행 중인 마당에 중국인을 여기에 둘 필요는 없다. 후자일 것임이 확실하다. 이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자.

베트남의 지배력이 비엔호아에 미치게 되면서(아직 정식 행정기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배후로 들어오게 된 참파가 문제였다. 그래서 1691년 새 왕(顯宗, 1691-1725)이³⁹⁾ 즉위한 후 베트남은 한동안 참

38) 『嘉定城通志』는 완유호가 캄보디아 왕을 사로잡아 사이공성으로 데려왔고 거기서 왕은 사망했다고 하는데(p. 204) 이는 착오인 것 같다.

39) 이 왕(Nguyễn Phúc Chu, 阮福漚, 명왕明王이라고도 함)은 베트남 남진사에 현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캄보디아 경영에서 적극적이었던 측면에서 19세기 민망 황제에 비견된다. 민망과 이 왕 공히 기독교를 몹시 싫어했다. 수명(壽命) 및 심지어 자녀 숫자까지도 서로 유사하다. 민망 황제의 자녀는 142명이었으며 수명은 50세였다. 명왕은 51세에 사망할 때까지 146명의 자녀를 두었다.

과 경영에 몰두했다. 1692년 참파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구실로 번국(藩國)으로서의 참파를 없애고(1693) 순성진(順城鎭)으로 삼았다가 이곳을 평순부(平順府)로 고쳤다. 이 해 또 반란이 일어나자 다시 순성진으로 고치고 번왕(藩王) 직을 두기도 했으나 1697년에는 베트남의 정식 지방 기관으로서 평순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 각 현을 두게 된다(『前編』, 7:13b). 이후로 여러 차례 ‘번왕’의 존재가 나타나기는 하나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이다. 1697년부터는 과거 참파 지역 즉 광남(廣南)으로부터 평순에 이르기까지에는 남김없이 베트남의 통치기구가 수립되었다. 이 베트남의 판도가 비엔호아와 이어지면서 베트남에게는 남부캄보디아의 광활한 대지로 진출하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땅에 대한 경영에 착수할 차례였다.

이듬해인 1698년에 남부캄보디아를 지배하기 위한 기구로 가정부(嘉定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비엔호아에는 진변영(鎭邊營), 사이공 및 부근에는 번진영(藩鎭營)⁴⁰이 가정부 산하 두 군영으로 설치되었고 이 지역에 들어와 살던 중국인은 각각 명향사와 청하사로 묶어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이공에 있던 캄보디아 이국왕의 행방은 분명하지 않다. 정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회덕은 사이공에 있던 이국왕 닉눈이 마침 죽어서 베트남 왕은 그의 아들 닉엄(匿淹)을 캄보디아 왕으로 삼아 벽퇴 성에 거하게 했다고 한다(Trình Hoài Đức 1998: 205). 여기서 닉눈의 아들을 앉혔다는 캄보디아 왕 자리란 이국왕을 가리키는 것 같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베트남군이 이국왕을 죽일 리는 없을 것이지만, 가정부를 설치한 베트남 입장에서 이국왕의 존재는 거북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이국왕이 사라지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유

40) 이후 사이공 및 메콩델타에서 진변영이란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남부 캄보디아’는 광대한 개활지인데다가 캄보디아와 통하는 길이 여럿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번진’이란 이름은 ‘번병(藩屏)의 요새’라는 뜻이니 이곳이 캄보디아 이국왕 즉 번국의 왕이 있던 곳이었음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다.

력하다. 한 가지는 닉눈의 경우처럼 ‘마침 죽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닉엄을 옮겼다는 벽퇴는 앞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베트남-캄보디아 간 무력충돌의 장이었다. 캄보디아의 정국왕이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사이공에 있던 이국왕이 영영 사라지길 바란다면 베트남 측이 볼 때 벽퇴는 매우 적당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혹 정회덕의 말대로 ‘캄보디아 왕으로 삼아’ 보냈으니 이국왕 엄이 진짜로 캄보디아 정국왕이 된다면 친베트남계 캄보디아 왕을 보게 되는 베트남으로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베트남의 움직임에 캄보디아 왕이 손을 놓고 있을 리가 없었다. 사이공과 비엔호아를 탈환하기 위한 공세는 시도하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베트남군의 북진을 대비한 방어책은 마련되어야 했다. 이런 움직임이 1699년 음력 7월 ‘실록’ 기사에는 “진랍의 닉추가 반발하여 벽퇴, 남영, 구남의 제 보루를 쌓고는 상민(商民)을 괴롭히고 약탈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前編』, 7:15a).

위의 사실을 보고한 사람이 바로 진상천이었다. 그리고 그의 직함은 ‘용문장(龍門將)’이었다(ibid.). 진상천은 영주(瀛洲)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주는 19세기에 빈롱성(Vinh Long 永隆)에 속하는 지역임이 ‘실록’에 부기되어 있다(ibid.). 빈롱은 앞으로 한참 후인 1732년에야 용호영(龍湖營)이 설치됨으로서(『前編』, 9:9a) 베트남의 지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곳이다. 캄보디아 왕 닉추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1699년 당시에 영주는 캄보디아 땅이었다. 진상천은 베트남군의 선봉으로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닉추의 동태를 그가 보고하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1699년 음력 11월 드디어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베트남 군대 구성원은 평강(平康, 태강에서 바뀐 이름), 진변 2영의 군사와 광남(廣南) 7선(船) 병사, 그리고 ‘용문장사(龍門壯士)’였다(『前編

』, 7:15a).

1699년의 출정에서 진상천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난다. 총지휘는 완유경(阮有鏡, Nguyễn Hữu Cảnh)이 맡고 전봉(前鋒)은 진변영 유수(留守)에게 갔으며 진상천의 역할은 ‘실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前編』, 7:15b)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면서 진상천의 부대가 실질적인 선봉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 1700년 음력 3월 기사에서 “진상천은 賊과 싸워 모두 승리해 [베트남의] 군대는 남영 벽퇴 요새(碧堆壘)에 이르렀다”(『前編』, 7:15b-16a)고 한다. 베트남의 군대가 프놈펜까지 승승장구하며 전진했던 것은 진상천이 맨 앞에서 싸워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사이다.

진상천의 활약은 1705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발생한 베트남-캄보디아 양국 간의 전쟁은 캄보디아 왕위 계승 분쟁으로 야기된 것이지만 이 분쟁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까지 간여했다. 캄보디아 이국왕이었던 너엄은 정국왕 너추의 사위가 되어 있었다. 이즈음 너추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는데 새 왕의 이름은 너심(深 Thommo Tacha, 1702-1704, 1706-1710)이었다. 곧 너심과 너엄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너엄이 베트남의 지원을 요청했고 태국은 태국대로 너심을 지원하고자 출병하여 메콩의 전강(前江, Upper Mekong)까지 들어왔다(『前編』, 7:25b).

이때의 베트남 지휘관은 완구운(阮久雲, Nguyễn Cửu Vân)이었다. 태국군 옆에는 너심의 캄보디아군도 함께 했을 것이니 캄보디아-태국 연합군이 캄보디아 영토인 메콩 하류에서 베트남군의 배후를 친다는 작전은 유효하게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양군은 라익검에서 충돌했다. 베트남군은 태국-캄보디아군을 물리치고 너엄을 호위하여 로벽성(羅壁城)으로 들어갔다고 한다(『前編』, 7:26a). 여태까지의 전쟁에서 베트남군은 가장 북쪽으로 진격한 것이다. 너심은 태국으로 달아났다. 이때 너엄이 캄보디아 왕 역할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이 사람이 캄보디아 측 왕계도에 나오는 앙엠 왕(Ang Em, 1704-1706, 1710-1722)인 것 같다. 이 전쟁에서 용문 병사의 활약은 ‘실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장이 미토에 가까운 라익검이 었다는 점, 수전이였다는 사실, 완구운이 신임 지휘관이였다는 것, 그리고 베트남군으로서는 처음 경험해 보는 태국군과의 대규모 전투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매콩을 낀 싸움에서 늘 선봉을 담당하던 진상천 군대가 빠졌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싸움을 통해서 진상천 부대의 위상은 더 높아졌던 것 같다. 다시 진상천이 나타나는 5년 뒤의 ‘실록’ 기사에서 우리는 그가 사이공에서 꽤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이공은 베트남 입장에서 보자면 캄보디아 경략의 전초기지였다. 이곳에서 진상천은 적어도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한 최고 책임자였다. 그 증거는 1711년에 보이는 베트남 왕의 서신 내용이다. 태국으로 망명했던 닉심은 베트남군이 철수하자 곧 귀국해서 왕좌를 놓고 엄과 다투었다. 곤경에 빠지게 된 닉엄이 자신의 심복인 라오인 취분발(吹盆榜)을 시켜 진변, 번진 2영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두 영을 대표해서 완구운과 진상천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前編』, 8:12b). 이때 완구운의 직함이 진변부장(鎭邊副將)이었고 진상천은 총병이었는데 전자의 임지가 진변영이었다면 후자는 번진영 즉 사이공에 있었다. 이때는 아직 번진영 보다는 진변영이 행정, 군사의 중심지였다. 번진영은 캄보디아 왕이 있었던 곳이고 진변영은 북쪽에서 내려오던 베트남 입장에서 보자면 더 베트남화가 진행되었던 곳이었다. 그래서 1699년의 전쟁에서 광남의 군사와 더불어 태강, 번진 2영의 군사들이 동원되는데 비해 번진영 인력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1698년 가정부가 설치되었지만 이 가정부의 치소(治所)는 사이공이 아니라 비엔호아에 있었다.⁴¹⁾ 그러니

41) 번진영이 남부 지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1731년 캄보디아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

진변영에 있던 완구운이 대 캄보디아 작전에서 총 지휘관이고 그보다 캄보디아 쪽에 가까운 번진영에 진상천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캄보디아 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때가 1711년이다. 캄보디아의 옥야(okya)⁴²⁾로 있던 하띠엔의 막구가 1708년 베트남에 귀부하고 받은 직책이 진상천과 마찬가지로 총병으니(『前編』, 8:4a) 사이공 지역의 성격과 진상천의 위상은 하띠엔 및 막구와 유사했던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즉 캄보디아 땅이었다가 최근 베트남 지배지로 들어온 곳의 지배자로 중국인을 앉힐 때 그 직책이 총병이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실록의 다른 곳에서 총병 직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완구운과 진상천의 보고에 대해 왕은 “경등은 마땅히 자세히 적정을 탐지하여 때에 맞추어 변화에 대응해(隨機應變)”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면(『前編』, 8:12b-13a) 캄보디아에 대한 대응에서 진상천의 위상이 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1715년 전쟁이 발발했고 진상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714년 말인 음력 11월 너십의 군사가 너엄을 포위했고 너엄은 번진과 진변 2영에 구원병을 요청한 바 있다(『前編』, 8:19b-20a). 이 전쟁에는 취분발이 지휘하는 2,000명의 라오 병사도 너엄 측에 가세했다(『前編』, 8:19b). 이때 이미 도독으로 직함이 바뀐 번진 도독(藩鎮都督)⁴³⁾ 진상천과 진변부장(鎮邊副將) 완구부(阮久富, Nguyễn Cửu

서 장복영으로 하여금 원정군을 통제하게 했을 때 “번진영 남쪽에 조견영(調遣營)을 별도로 두었다”(『前編』, 9:6b)고 할 때부터였던 것 같다.

42) 베트남 한자 표기는 屋牙, 발음은 옥냐(ók nha)이다. 베트남 발음의 영향인지 캄보디아 관련 서적에서는 옥냐(oknha)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캄보디아 발음은 ‘어끼야’ 정도가 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한자어 발음으로 적겠다. 또한 이 발음이 캄보디아 발음 어끼야에 가깝기도 하다. 챠들러의 표기법은 ‘okya’인데, 이는 오크야라 읽어도 되고 옥야라고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니 본인이 쓰는 옥야라는 표기법이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옥야란 캄보디아에서 고급 관료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캄보디아 왕에 대해 임명된 자들이다. 지방의 영지가 정치, 경제적 기반인데 이를 지역을 스록(srok)이라 한다. 그들은 1년에 두 번 왕실 사원에 모여 ‘충성의 물(water of allegiance)’을 마시며 왕과의 유대를 확인했다. 옥야에 대해서는 Chandler(2008), pp. 130-133 참조.

Phú)가 먼저 군대부터 출동시킨 뒤 왕에게 보고했고, 이에 왕은 “변방의 일은 모두 경 2인에게 맡기겠다”고 다시 다짐하며 신뢰를 표시하고 있다(『前編』1, 8:20a). 베트남 군대는 곧 닉엄 및 라오 병사와 함께 진군해 1715년 정월에 로백성을 점령했다(『前編』, 8:21b). 주목할 만 한 것은 1711년에는 진상천의 이름이 베트남 장군 완구운 뒤에 나왔었는데 1714년 기사부터는 도독이라는 직함을 가진 진상천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⁴⁴⁾ 완구운의 후임인 듯한 완구부의 이름이 뒤에 온다는 사실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1715년 캄보디아 공격 작전에서는 진상천이 최고지휘자가 된 것 같다. 그의 주도 하에 캄보디아 왕위 계승에 관한 문제도 일단락을 지었다. 베트남 왕은 닉엄을 캄보디아 왕으로 임명했다(『前編』, 8:22a).

로백에서 도망쳤던 닉심은 태국으로 가서 구원병을 요청했고 태국과 닉심은 1715년 음력 2월 하띠엔을 공격했다. 곧이어 태국은 닉엄에게 서한을 보내 발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前編』, 8:21a). 이 서한의 내용은 다시 번진, 진번 2명에 알려지고 진상천과 완구부가 함께 연명으로 왕에게 보고하며 왕은 다시 두 장군에게 알아서 판단해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ibid.). 베트남 왕의 신뢰에 응답하듯 진상천, 완구부의 조치는 주도면밀했던지 이후 15년간 베트남-캄보디아 사이에는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채 평화가 유지되었다. ‘진상천 열전’에 의하면 진상천이 병들어 사망했다고 하는데(『列傳前編』, 6:17b) 그 시기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캄보디아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선 때부터 계산해 보자면 1715년까지만 해도 무려 25년 넘는 세월을 캄보디아와의 싸움과 경영에 종사했으니

43) 막구 사후 하띠엔의 총병직을 계승한 바 있던 막천석이 1739년 캄보디아인의 하띠엔 공격을 막아낸 뒤 그 공을 상찬해 조정이 새로 부여한 직책도 도독이었다. 『前編』, 10:2b.

44) ‘진상천 열전’에 의하면 출동이 있기 전에 조정에서는 진상천을 번진도독으로 삼았다고 한다. 『前編』, 6:16b.

베트남 역사 속에서 놓고 보자면 19세기 ‘보호진랍’으로 오래 일했던 완문서(阮文瑞, Nguyễn Văn Thoại) 정도나 진상천에 필적하지 않을까 한다.

맺음말

중국의 북쪽에서 내려온 만주족과의 싸움 끝에 베트남으로 망명한 용문 집단은 다시 또 베트남의 남쪽 너머에 있는 캄보디아의 땅에서 고단한 생존 투쟁을 벌여야 했다. 중국으로부터 보자면 ‘북동쪽의 야만인’, 베트남의 시각에서 보자면 ‘남서쪽의 야만인’과의 대결이 용문 집단 전 생애에 걸친 과업이었다. 만주족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했지만 크메르인과의 싸움에서 용문 집단은 성공적이어 보인다. 그러나 그 성공은 베트남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본고에서는 농업과 교역에 종사하는 존재로서의 명향사적 성격보다는 용문 집단이 원래 갖고 있던 무력 집단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했다. 그래서 이들의 행적을 베트남-캄보디아 간 메콩 델타를 놓고 벌이는 17세기말부터의 약 40여년에 걸치는 일련의 전쟁에서의 역할을 통해 살펴보았다. 용문 집단이 베트남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일은 곧 베트남군 행적의 핵심을 살피는 일이고 이는 곧 그 상대방에 있는 캄보디아의 동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제 1장에서는 용문 집단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메콩 델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았다. 베트남의 남진은 이미 참파 지역을 넘어 섰고 캄보디아와 접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싹은 자라기 시작했다. 매우 교묘하게도 베트남은 친베트남적인 사이공의 이국왕과 우동이나 로벡에 위치한 정국왕 사이의 갈등을 이

용해 가면서 남부캄보디아 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3,000여명이 되는 명 유민은 마치 베트남의 캄보디아 파견군 또는 선봉대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남부 캄보디아의 미토와 비엔호아로 찌르고 들어가 주둔했다.

이들의 공헌으로 토지가 개간되고 시장이 열려 교역이 발전했다고 베트남 사서는 주장하지만 필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왜곡인지를 제 2장에서 논하였다. 명 유민의 활동은 오히려 군사 분야에서 현저하였다. 미토에 정착한 지 9년 뒤에 부장 황진은 주장 양언적을 살해하고 미토를 떠났다. 이들은 베트남이 불 때는 반란 집단이 된 셈이고 캄보디아에서 불 때는 프놈펜으로 접근하는 베트남 선봉대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초기 황진은 베트남군에 의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황진 휘하 용문 병사들은 ‘베트남 군대’로 흡수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군’이란 비엔호아로 갔다던 진상천의 부대였다.

마지막 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진상천과 그 휘하 병력의 활동이다. 황진이 제거된 후 모든 명 유민 병사는 진상천 휘하로 들어가면서 한 명의 지휘관 아래 통합되었다. 그리고 용문장이라 불리게 된 진상천이 지휘하는 병력은 모두 용문병으로 간주되었다. 베트남-캄보디아 간의 전쟁이 주로 메콩 강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수전에 능한 용문 집단의 효용성은 매우 컸다. 진상천은 황진이 제거된 해부터 캄보디아와의 전쟁에서 베트남군의 선봉장을 맡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베트남-캄보디아 전쟁에서 용문 병사가 선봉을 맡게 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1698년에 가정부가 설치되고 비엔호아와 사이공에 베트남의 행정 기관 진변영과 번진영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진상천은 베트남 수도에서 보자면 가장 변방의 중심지인 사이공에 머물면서 캄보디아 경략 책임자로 근무했다. 이후 진상천의 활약은 1715년의 캄보디아 원정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데 이때는 원정군의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하면서 캄보디아 로벡 성으로 진격해 이국왕이었던 닉엄을 캄보디아 정국왕으로 앉히는 데 성공했다. 이로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 우열 관계는 명백해졌다. 당분간 즉 1750년대 초부터 베트남의 대공세가 개시되기 전까지 베트남은 캄보디아와는 이렇다 할 충돌 없이 메콩 델타 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용문집단은 어떻게 되었을까? 진상천 일행이 베트남으로 들어올 때가 1679년이었으니 이주 당시 20세였던 청년이라도 이미 1715년이면 46세가 된다. 이보다 15년 뒤라면 60이 넘어가는 나이이니 진상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나온 이후 용문집단의 역할 역시 거의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지 1731년 음력 4월에 라오인(牢人) 타줄(訛卒 Sá Tót)이란 자가 캄보디아 병사들을 이끌고 가정을 공격하자 통병(統兵) 진대정(陳大定)이 “용문의 속장(屬將)을 통솔해(率龍門屬將)” 싸우며 캄보디아로 진격했다는 기사가 나온다(『前編』, 9:6). 진대정은 진상천의 아들로써 음보로 통병(統兵)의 직을 맡은 인물이다(『列傳初集』, 6:17b). 이때 베트남 왕은 영왕(寧王) 응우옌푹쭈(Nguyễn Phúc Chú 阮福澍, 1725-1738, 肅宗)였고 캄보디아 왕은 닉엄의 아들 닉타(匿他 Sottha II, 1722-1738)였다. 진대정은 잘 싸웠으나 모함에 걸렸고, 이를 신원하러 왕을 만나러 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⁴⁵⁾ 그는 투옥되었다가 옥사했다. (1732) 뒤늦게나마 모함임이 밝혀졌으나 진대정 사망 이후 용문 집단의 자취는 베트

45) 이때 용문 집단 내부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었던 것 같다. 왕을 만나 신원하러 가는 배 위에서 진대정의 종제(從弟)가 시비를 따지는 것은 승산이 없으니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자고 주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후자 그룹이 우겨 배를 돌려 동쪽을 바라보고(필리핀 쪽인 듯)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진대정이 칼을 뽑아 종제를 참한 후에야 배는 다시 기수를 돌려 다낭 항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진대정이 궁극적으로 들어간 곳은 감옥이었다. 『列傳前編』, 6:18. 용문의 병사들이 1679년 다낭으로 들어왔으니 베트남 내 용문 집단의 수명은 다낭에서 시작해 다낭에서 종결된 셈이다.

남 군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진대정의 사망은 1679년부터 기산하면 53년만의 일이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진변영, 번진영을 얻었다. 진대정이 투옥된 그 해에는 번진영 서쪽으로 과거 1700년 당시 진상천이 지키던 빈롱 지역에 용호영이 만들어졌고 짜빈과 벤째를 포함하는 정원주(定遠州)가 두 어졌다(『前編』, 9:9a). 훗날 용호영은 빈롱성과 안장성으로 나뉘어지게 되니 비엔호아부터 하띠엔에 이르기까지의 긴 띠가 용문 집단의 공헌으로써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의 성공은 용문 집단의 소멸 과정이기도 했다. 양언적이 먼저 죽었고 황진이 베트남군에 의해 제거되었다. 진상천은 열전 때까지 오를 정도로 분투했지만 그 아들은 결국 베트남인의 손에 죽었다. 1750년대에 완거정(阮居貞 Nguyễn Cư Trinh)은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 전략을 ‘누에가 뽕잎 갹아먹기(蠶食)’와 ‘야만으로 야만 때리기(以蠻攻蠻)’로 요약한 바 있다(『前編』, 10:28). ‘이만공만’은 캄보디아와의 대결에서 참인을 이용하자는 제안에서 비롯된 표현이지만 남부캄보디아를 ‘잠식’하기 시작한 1679년부터 이미 ‘이만공만’의 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하겠다. 베트남 사서에서는 명 유민 3,000여명이 만주 야만인의 지배를 거부하고 명의 향화를 받들기 위해 귀부한 자들이라 미화되지만 베트남 조정이 이들 명 유민에게 부과한 과업의 요체는 ‘이만공만’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서에서의 표현대로 명 유민들이 미토와 비엔호아를 중심으로 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교역을 발전시키면서 ‘한풍’ 또는 ‘화풍’을 퍼뜨린 시기는 암만 길게 잡아도 9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용문의 병사들은 베트남 조정이 펼쳐놓은 전쟁터에서 보냈다. 전장에서 그들은 ‘만’(캄보디아)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만’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명 유민의 실체가 중국과 베트남을 넘나들던 해적 집단이었음이 이미 갈파되었다면 응우옌 조정이 이들을 ‘만’으로 간주하는

데는 아무런 모순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제어: 메콩, 메콩 델타, 명 유민, 용문 병사, 진상천, 양언적, 미토, 비엔호아, 중국인

〈참고자료〉

- 『大南寔錄前編』 1844.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東京, 1961.
『史記』. 京仁文化社, 서울, 1977.
藤原利一郎. 1986. 『東南アジア史の研究』1, 法藏館, 京都.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서울.
林春勝, 林信篤 編. 『華夷變態』 中冊, 東洋文庫, 東京.
조흥국. 1997. 「17세기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의 정치적 관계 -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연구』 5호.
Antony, Robert 2002. “Piracy on the Sino-Vietnamese Border, 1550-1850.” Conference on “Nguyen Vietnam: 1558-1885”, 11-12 Ma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handler, David. 2008. *A History of Cambodia*, Westview, Boulder (Colorado).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Ithaca.
Dror, Olga and Taylor, K. W. (trans./ed.). 2006. *Views of Seventeenth-Century Vietnam, Christoforo Borri on Cochinchina and Samuel Baron on Tonkin*,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Ithaca.

- Ishii, Yoneo (ed.). 1998. *The Junk Trade from Southeast Asia, Translation from the Tôsen Fusetsu-gaki, 1674-1723*.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 Jacobsen, Trudy. 2008. *Lost Goddesses, the Denial of Female Power in Cambodian History*, NIAS Press, Copenhagen.
- Kersten, Carool. 2006. "Cambodia's Muslim King: Khmer and Dutch Sources on the Conversion of Reameathipdei I (1642-1658),"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No. 1, vol. 37.
- Leclère, Adhémar. 1914. *Histoire du Cambodge depuis le 1er siècle de notre ère*, Librairie Paul Geuthner, Paris.
- Khin Sok. 1991. *Le Cambodge entre le Siam et le Viêt Nam (de 1775 à 1860)*,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aris.
- Lê Quý Đôn, trans. by Lê Xuân Giao. 1972. *Phủ Biên Tạp Lục* (撫邊雜錄), Phủ Quốc Vũ Khánh Đặc Trách Văn Hóa, Saigon.
- Mak Phoeun, Po Dharma. 1984. "La première intervention militaire vietnamienne au Cambodge (1658-1659),"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73.
- _____. 1988. "La deuxième intervention militaire vietnamienne au Cambodge (1673-1679),"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77.
- Nguyễn Văn Hào. 1970. "Sự thôn thuộc và khai thác đất Tầm Phong Long (تهم풍롱 지역의 흡수와 개척)," Nguyễn Thế Anh et. al. *Nam Tiến của Dân Tộc Việt Nam* (베트남 민족의 남진), Khai Trí, Saigon.
- Niu Junkai and Li Qingxin. 2011. "Chinese "Political Pirates" in the Seventeenth-Century Gulf of Tongking," Nola Cooke, Li Tana, and James A. Anderson (ed.), *The Tongking Gulf Through Histo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Phù Lang-Trương Bá Phát. 1970. “Lịch sử cuộc Nam Tiến của Dân Tộc Việt Nam (베트남 민족의 남진 역사),” Nguyễn Thế Anh et. al. *Nam Tiến của Dân Tộc Việt Nam* (베트남 민족의 남진), Khai Trí, Saigon.
- Reid, Anthony.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vol. one, Yale University Press.
- Sakurai, Yumio. 2004. "Eighteenth-Century Chinese Pioneers on the Water Frontier of Indochina," Nola Cooke and Li Tana (ed.), *Water Frontier, Commerce and the Chinese in the Lower Mekong Region, 1750-1880*, Rowmand & Littlefield, Lanham, MD.
- Trịnh Hoài Đức, trans. by Đỗ Mộng Khương, Nguyễn Ngọc Tinh. 1998. *Gia Định Thành Thông Chí* (嘉定城通志), nxb. Giáo Dục, Ho Chi Minh City.
- Wheeler, Charles. 2012. "Identity and Function in Sino-Vietnamese Piracy: Where Are the Minh Hương,"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16.
- Zottoli, Brian A. 2011. "Reconceptualizing Southern Vietnamese History from the 15th to 18th Centuries: Competition along the Coast from Guangdong to Cambodi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14.06.11 투고, 2014.08.12 심사, 2014.08.19 게재 확정)

<Abstract>

Vietnamese Occupation of the ‘Lower Cambodia’, and the Role of ‘the Long Môn Soldiers’ of Ming China

CHOI Byung Wook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ilitary role of the 3,000 Long Môn soldiers in the history of Vietnam. These Ming refugees have been understood as the remnants of Ming troops against Manchurian invasion of China, though their career in China as pirates have also been known in previous studies. Official view on these Ming refugees of the Nguyễn dynasty is that they were sent to Mỹ Tho and Biên Hòa, and that they opened arable land, built market places to attract overseas traders, and the spread of Hán or Hoa air began by their settlements. In other word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ỹ Tho and Biên Hòa area was attributed to the contribution of the 3,000 Ming refugees. However, author of this study claims that the main contribution of these Ming refugees was not economic development of 'Lower Cambodia' region, but the territorial expansion of Vietnam by the military means.

As the background of the conflicts between Vietnam and Cambodia, chapter one of this article reviews the military intervention of Vietnam to

the Cambodian civil wars based on the Vietnamese official records. By examining the operation routes of Vietnamese troops, author made a clear conclusion that the region from Biên Hòa to the west had not been the part of Vietnamese territory until the Vietnamese court sent the 3,000 Ming soldiers to Mỹ Tho and Biên Hòa in 1679.

In the chapter two, author examines the Ming refugee group in Mỹ Tho. Among the leading figures of this group, power struggle occurred. In 1688, the vice commander Hoàng Tấn assassinated the commander Dương Ngạn Địch. Hoàng moved his soldiers to the upper area of the Mekong causing Cambodian king to doubt Vietnamese invasion of Cambodia started. The commander of the Vietnamese troops ended Hoàng's leadership and put the soldiers of Hoàng under the leadership of Trần Thượng Xuyên, another leader of Ming refugee soldiers who had stationed in Biên Hòa.

The chapter three traces Trần Thượng Xuyên and his soldiers who were called Long Môn soldiers - *tướng sĩ Long Môn* by the court chronicle of Vietnam. From 1689 to 1730s, the Long Môn soldiers were found in every war between Vietnam and Cambodia as the form of the vanguard under the command of Trần Thượng Xuyên. The contribution of Trần Thượng Xuyên and his soldiers was impressive until the Biên Hòa and Hà Tiên were connected together by the new lands of Vietnam in 'Lower Cambodia' in 1732.

Author concludes that the role of the 3,000 Ming refuge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trade was not as big as the court chronicle claims. More contribution of the soldiers was in the field of military operation to convert the most of the lands of Lower Cambodia to those of Vietnam. They were properly used as the tool of oppressing the resistance of

Cambodia, a barbarian - *man*- country from the point of Vietnamese view. But to the eyes of Vietnamese court, the Long Môn soldiers also could have been another barbarians if we remember Vietnamese tactic of '*di man công man*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The fact that the Ming refugees had been pirat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Gulf of Tonking was an enough reason for the Vietnamese kings to regard the Chinese soldiers as to be *man*.

Keywords: Mekong, Mekong delta, Ming refugees, Mỹ Tho, Biên Hòa, Long Môn soldiers, Dương Ngạn Địch, Trần Thượng Xuyên, Chinese